

# 정헌을 시장 “유망 중소기업 특별관리 필요”

## 지역인재할당제·관내기업 혜택 등 기업지원책 모색

익산시가 인구정책 원탁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주요의견들을 반영해 기업 지원에 나선 계획이다.

정헌을 익산시장은 28일, 간부회의에서 “익산시에 동지를 둔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현실적으로 대기업 유지를 하는 것보다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키워서 청년이 갈만한 기업을 만드는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망한 중소기업들에 대

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 대기업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청년을 익산에 남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지원과 관련한 제도들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타시의 사례를 들어 “우리지역에 유치한 준정부기관에 지역인재할당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력하고, 더불어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이용시 익산기업은 타지역 업체보다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쓰라.”고 덧붙였다.

익산시는 지난 24일,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익산시민 100인 인구정책 원탁토론회를 열고, 청년을 익산에 남게하는 일자리 정책 등 총 47가지 의제를 정해 참가자들이 열린 토론을 벌인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헌을 시장은 내 나무심기 행사에 대한 동참도 당부했다. 정 시장은 “내나무 심기운동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민간 참여운동이다.”라고 설명하며, “출생, 입학, 졸업, 취업, 결혼,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자 하는 익산시민이 현수 및 기부금을 통해 내 나무를 심을수 있다.”면서 간부 및 직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현재 인화공원에는 탄생의 숲, 성장의 숲, 결혼의 숲, 기념의 숲으로 구분하여 내 나무심을 조성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15일 내 나무심기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이제 분예산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면서 “마지막 점검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주문하고, 국화축제 근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미용산업문화학회가 지난 26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지식재산을 통한 미용문화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 지식재산 통한 추계 학술대회 개최

### 군산대 소진호 교수 '뷰티산업 분야의 지재권등록현황 분석' 특강 등

미용산업문화학회(회장 교수 김기영)가 지식재산을 통한 미용문화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지난 26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미용산업문화학회와 군산대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단의 주최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를 통해 군산대 소진호 교수의 '뷰티산업 분야의 지재권등록현황 분석'이라는 특강으로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군산대 최연성 교수도 '영화 아바타를 통해 본 판타지 메이크업의 예술성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회를 가졌다.

또한 서경대 김종선 교수가 발표한 '디지털 퍼머먼트 웨이브와 매직 스트레이트 기술 시 팹타이드 전처리와 ACS 후처리에 의한 모발의 색상 변화와 광주여대 장미오 교수의 '청나라의 집초문(나비초문)을 활용한 네일아트 디자인 개발'에 대한 발표도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날 구두발표회 이외에도 운영한(서해대학 교수)·이인아(군산대학 교수)·최수철(군산대)·김상민(군산대)의 Nomi의 피부주름 개선과 TLR4/MYD88/NF-κB 조절에 의한 염증감소 효과 등 다수의 포스터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성황리 '진행 중'

## 시, 우수 국화작품 전시된 실내전시관, 관람객들 큰 호응

익산시는 지난 25일 개막한 제16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개막이후 광주, 대전,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꿈과 사랑의 나라로 떠나는 국화 여행'이라는 주제에 맞

게 가족, 연인,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돼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장 공들인 공간인 국화축제 특별 전시장은 입장료가 3,000원이며 익산 시민, 청소년 및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 입장료는 전액 교환쿠폰으로 교환해 축제장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우수 국화작품이 전시되는 실내전시관에는 다룬대작, 현애, 분재, 임국 등 1000여점의 전국 최고의 대형 국화작품과 전북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한 50여종의 국화신품종이 전시돼 관람객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익산의 대표 농산물

인 탐마루 쌀과 고구마, 국화빵, 국화화장품 등 100여종의 지역 우수 로컬푸드를 만나볼 수 있으며 국화향남주머니, 국화꽃 뜨개 공예, 국화꽃 책갈피 등 다양한 국화 관련 체험관도 운영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시 관계자는 “국화축제가 주말 수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명실상부한 대표 국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경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축제는 내달3일 까지 계속된다. /익산=정인천 기자

## 익산시, 지역발전 위한 도의원과 정책공유

익산시는 28일 소회의실에서 정헌을 시장과 부시장, 국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김대호·김정수·김기영·최영규 도의원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익산시 홀로그램 과학관' 건립에 지원요청을 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공조 체계 구축에 나섰다.

내년부터 정부가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하던 23개, 약 3.6조 규모의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광역, 기초자치단체 간 소통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

부)가 지방에 과학관 확충을 검토 중인데 익산시는 홀로그램을 테마로 하는 '익산시 홀로그램 과학관'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익산시를 넘어 전북도의 미래를 선도할 현안사업으로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공동 대처를 요청했다.

익산에는 이미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가 구축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25일부터 3일간 '2019 대한민국 홀로그램 엑스포'가 개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명실상부한 홀로그램의 메카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정헌을 익산시장은 “익산시는 앞으로도 도의회와 소통을 통해 지방이양사업과 지역현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유하고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다”며 “익산시 지역사업이 활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의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석한 도의원들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도 관계부서는 물론 해당 상임위에도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내년도 본예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익산=정인천 기자

## 군산해경, 지역어민 대상 해양오염방제훈련 실시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고군산군도 특성 상 원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8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옥도면 장지도 마을 해변에서 지역 어민 중심의 자율방제 조직인 국민방제대(신시, 선유, 선유3구)와 합동으로 해양오염방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오염 방제훈련에는 군산해경과 신시·선유·선유3구 국민방제대원 등 30명이 참여했고 소형어선 1척도 동원됐다. 훈련은 대장도 동쪽 해상에서 침몰 선박이 발생하면서 유출된 기름이 장지도 마을 해변으로 밀려오는 상황을 가상으로 실시됐다. 해상 유출유로부터 양식장 보호를 위해 오일펜스 40m와 펜스형 유흡착재30m 설치 훈련으로 진행됐다. 김종필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원거리 섬 지역에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해경의 초동대응이 어려워 신속한 방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세무과, 청암산 환경정화 활동 구슬땀

군산시 세무과 직원들이 오는 11월 2일 열리는 청암산 구슬땀 전국등산축제를 앞두고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최근 시 세무과 직원 30여명은 군산시의 여러 관광명소 중 최근 힐링 코스로 각광 받고 있는 청암산에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이 찾으면서 보다 나은 자연환경을 제공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청암산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직원들은 등산로 및 산책로의 환경정비는 물론 청암산 진입로, 주차장,

인근 버스 승강장에 대한 쓰레기 수거와 입구 도로변 주변에 있는 불법 현수막 등을 제거하는 등 청암산 및 주변의 환경정비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정용기 세무과장과 직원들은 “오늘의 봉사활동이 작은 실천일지라도 시민과 탐방객에게 깨끗한 관광자원을 제공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가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20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 31건을 심의·의결한다.

의원발의 조례는 6건으로 한상욱·오임선 의원이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 김경진 의원

이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경호 의원이 '익산시 소방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이순주 의원이 '익산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한상욱 의원이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1차 본회의에서는 김진규 의원이 '익산시 출산장려 정책'을 주제로, 강경숙 의원이 '하수관거 노후화로 인한 싱크홀 해결방안'을 주제로, 박종대 의원이 '불법쓰레기 투기지역 관리용 CCTV 설치'를 주제로, 유재동 의원이 '익산시 환경문제 시민과 함께 해결방안 모색 필요'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